

2020 **꿈** 을 쏘다 <8> 문화기획자 김도아·박길성



광주 공동미로센터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김도아(36) 광주동구문화적도시재생 사업단 팀장과 박길성 담양 담주 다미담예술구 사업단 국장.

“문화 프로젝트에선 ‘네트워킹’이 중요하죠”

김도아 광주동구문화적도시재생 사업단 팀장

예술의 거리 공동 미로센터 개관 등 참여...“작은 플랫폼 많아졌으면”

박길성 담양 담주 다미담예술구 사업단 국장

30개 문화기획 단체 유치...“기획자는 퍼즐조각 많이 갖고 있어야”

지역 문화예술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이들 중 빼 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는 게 문화기획자들이다. 예술가들과 향유자를 연결시키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문화판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들은 소중한 자산이다.

요즘 눈에 띄는 문화 공간인 광주 예술의 거리 공동미로센터에서 활동중인 있는 광주동구문화적도시재생 사업단 김도아(36) 팀장과 담양 담주 다미담예술구 사업단 박길성 국장(39)을 만나 지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김팀장은 대학에서 공예디자인을 전공한 후 문화기획과 예술감사 활동을 계속했다. 시작은 2008년 대인시장 마나리 프로젝트였다. 아이들과 시장 상인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일을 맡았다. 예술교육공동체 ‘컬’과 인연이 닿아 의재미술관 어린이 프로그램을 등을 진행했고 전남대문화전통대학원에서 공부한 후 1년간 뉴질랜드로 떠났던 김 팀장은 2016년 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프로그램 ‘나도 예술가’ 프로젝트를 맡기도 했다.

박 국장의 이력은 좀 독특하다. 공대를 졸업하고 국문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그는 광주문화재단 무대팀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잡지사 기자, 광주문화재단 웹진 편집위원을 거쳐 동신대에서 글쓰기 강의 등을 진행했다.

문화쪽 일을 시작한 건 2016년 담양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누림’에 합류해 ‘담빛장, 오늘은 담빛장 날입니다’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부터다.

김 팀장은 지난해 공동 미로센터의 개관을 준비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예전에 직접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지역

기획자, 작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 ‘워킹그룹’을 조직하고 다양한 주제와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는 등 그들에게 미션을 주는 역할을 했는데 보람도 있고 흥미로웠어요. 판을 활짝 펼쳐놓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자는 마음들이어서 모두들 의기투합도 쉬웠죠.”

마음을 모아 진행하다 보니 일은 흥미로웠고, 올해는 예산 집행이 불투명한 상태지만 그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올해도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막 판을 벌인 상태라 뭔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해요. 젊은 예술가들, 기획자들 모두 자발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이어갈까 고민중이죠. 어떤 식으로 예술의 거리를 좀 더 흥미로운 공간으로 만들어갈까 아이디어를 모으며 그 과정을 함께 해보려합니다.”

박국장이 참여하고 있는 담양 담주 다미담예술구 사업은 올해 4년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담양장 골목길 안의 집 16채를 구입해 리모델링했고, 올해는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 관련 단체·기업 30여곳이 입주하게 된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가 중요하죠. 저희 사업단은 군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게 중요했어요. 공간을 조성하고 설계 등을 제안하고, 청년 그룹들을 모아서 연결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필요했죠. 전남관광문화재단 등과 연계해 청년 작가들에게 다미담갤러리를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군’이라는 작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 예술인들과 단체에게 문화기획 등과 관련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았어요. 저희가 답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전

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죠.”

김팀장은 지난해 함께 사업을 도모했던 이들과 나눴던 즐거운 경험을 올해도 이어가려 한다.

“현장 기획자로 활동하며 예술 향유자·소비자를 만나는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반면 지금 저의 역할은 예술가들이 취약한 예산 작성, 기획안 제작 등 행정상 도움을 주면서 그들이 좀 더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 기획자였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해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작가나 기획자들은 ‘같이 한번 해볼까 의기투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가 아닌 ‘우리’가 같이 해보고 싶는데 함께 하자고 말하죠. 회의도 재미있고 진행했어.” “겨울바다’를 주제로 비단소리 들으며 라운드 테이블을 열기도 하구요, 설날 즈음에는 한복 입고 웃음을 했죠.”

김팀장은 누구나 부담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플랫폼에 관심이 많다.

“예전에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작은 플랫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사라진 것 같아 아쉬워요. 규모가 큰 공간이나 사업들이 많아졌지만 말이에요. 예술가들, 기획자들, 향유자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작은 플랫폼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펍이나 카페 등을 만들어 보자 이야기하기도 하죠. 내가 즐겁게 일하고 놀면서 문화 기획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모두 강조한 것은 ‘네트워킹’이었다. 청년 기획자나 예술가들이 혼자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도 의미있지만 ‘네트워킹의 힘’으로 단발적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만들어내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들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자는 판을 잘 때 필요한 퍼즐 조각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선택지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면서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죠.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계속 연결하고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박국장)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코로나19 여파” 광주문예회관 대관 공연도 연기·취소

코로나 19로 인해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하 문예회관)은 지난 5일 문예회관 기획공연과 광주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을 잠정 연기 또는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2~3월 중 대관 공연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공지했다.

취소된 공연은 가족뮤지컬 열사(18일), 2020 김연자 라이브 콘서트(22일), 어린이 뮤지컬 햇빛고(22~23일), 광주 Youth Singers 제2회 연주회(25일), 댄스플러스 아카데미 쇼케이스(28일), 2020 TOWN MAGAZINE 2월호(29일), 2020 김범수 콘서트 The Classic(29일) 등이다.

또 3월 예정된 뮤지컬 위월락(3월 5~8일), 금관앙상블 연주회(3월 15일), 천원의 낭만(3월 16일), 광주 CBS 제 33회 성가대합창제(3월16일),

극단 가람의 앤서니브라운의 대지책(3월21일~22일) 등 5개 공연도 취소됐으며 2020 60주년 기념 이미지 콘서트(3월 14일), 2020 50주년 기념 조영남 콘서트(3월 15일)는 연기됐다.

이밖에 교향악단의 ‘GSO 11시 클래식’(3월10일)과 기획공연 ‘포시즌’의 압 판 츠베덴&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3월12일) 무대는 취소됐다.

국악상설공연과 국악관현악단 제124회 정기연주회(3월12일), 시립발레단의 ‘오월바람’(3월13~14일), 시립합창단 제 183회 정기연주회(3월19일),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봄’(3월 25일), 시립교향악단 제351회 정기연주회(3월 26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봄의 향연’(3월 28일) 등 7개 공연은 연기됐다. 문예회관 측은 연기된 공연에 대해서 이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재공지할 방침이다.

/전은혜 기자 ej6621@

정정하 개인전, 13일~3월11일 금호갤러리

빛을 모으는 또 다른 방법

서양화가 정정하 작가 개인전이 13일부터 3월 11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1·2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금호갤러리가 진행한 유·스퀘어청년작가 전시공모에 선정돼 열리는 전시회다. 지난해 리체 갤러리에서 열렸던 첫 개인전 ‘빛을 모으는 또 다른 방법’ 이후 같은 타이틀로 꾸준히 작업해온 정 작가는 이번 전시 역시 같은 테마로 진행한다.

정 작가는 자신과 사람들의 관계를 ‘빛’으로 기록해왔다. 작품 속에는 작가 개인의 심상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관찰해 기록한 ‘빛’이 담겨 있다. 작가는 그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에너지가 여러 방식으로 모이고 흩어지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빛은 사람들의 소망이자 기대치라고 말한다.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동대학원을 수료한 정 작가는 ‘예술산책’ (담빛예술



“빛을 모으는 또 다른 방법”

창고)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정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다양한 느낌을 주는 작품 재료 레진을 활용해 제작한 그림들은 실형적인 작품들로 빛 곧 에너지를 수집해 가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올해의 문장 “행복은 늘 작고 단순한 것 속에 있다”

“행복은 늘 작고 단순한 것 속에 있다.”

2020년 ‘올해의 문장’ 독자 투표에서 장석주 시인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유문화사)에 있는 “행복은 늘 작고 단순한 것 속에 있다” 문장이 최다 득표를 했다.

교보문고는 출판사를 대상으로 2019년 출간된 도서에서 50자 이내의 짧은 기억에 남을 만한 문장을 ‘올해의 문장’ 후보로 공모했다.

교보문고는 접수된 250개 문장을 대상으로 1차 선정작업으로 30개 기량 선별했으며 이후 내부적

원 투표 최종 후보 12개를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독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1만5000여명 투표에 참여해 5600여명이 장 시인의 문장을 선택했다.

이밖에 12종의 문장은 “모든 일은 눈앞의 한 걸음 떼는 것에서 시작된다”(우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나에게’), “살아란 모든 이유를 하나씩 알아가는 여정이다. 애써 빨리 정답을 찾으려 할 필요도 없다”(강가희 ‘이제, 당신이 떠날 차례’) 등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